

“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6)보이는 하나님의 은총 '성례전' —성례전, 신실한 약속의 증표—

■ 김세광 교수(서울장신대학교)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선 성례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성례전의 이해는 정체성 규명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현재 지역교회의 목회 사역을 진단하는 데도 중요하다.
오늘의 성례전 이해와 집례는 개혁교회가 표방해 온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리고 성례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열심히 성례전을 거행하는 타교단, 초교파적 교회들, 새로운 공동체 교회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성례전 집례는 바르고 충분한가?

우선 이 질문에 대해 즉답을 하면, 현재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성례전은 이미 총회 헌법과 예식서에 는 개혁교회의 성례전 신학이 적절히 반영돼 있으나, 아직 지역 교회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교회에서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표요, 은총의 계약에 대한 인치심으로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

이 고백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성례전'이다. 총회 헌법에서도 성례전은 '은총의 보이는 형태'로 표현했다. 이것과 함께 중요한 설명은 칼뱅의 성례전 이해인데, 그는 성례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표지"라고 하면서, 칼뱅의 대적자인 니고데모파의 성례전의 무용론에 대해해 말하기를 "우리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떠받치기 위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의의 약속들을 우리들의 양심에 보증하는 주의 외적인 표"라고 말한다.

개혁교회의 성례전 신학은 세계교회의 교회 일치를 위한 성례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화를 통해 개혁해가는 교회(reforming church)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교회 일치운동의 중심 교단 중 하나로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지녀야할 성례전 신학을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례전

칼뱅이 성례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로 정의한 것을 예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례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성례전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칼 바르트도 성례전을 3중적 하나님 말씀의 하나로 정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3중적 이해를 기준으로 보면 말씀 중심을 강조하는 한국 장로교회의 현재 모습은 선포된 말씀(설교) 한 차원에만 치우쳐 있다. 세계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 성경의 봉독도 충분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말씀(성례전)의 집례는 미약한 실정이다.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 성례전이 집행되어야한다고 힘주어 강조한 이유도 성례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표지이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례전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개혁교회 신학을 잘 드러낸다. 성례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복음의 의미를 새롭고 실감있게 대할 수 있다. 성례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확실히 표현된다. 하나님의 행위가 우선(primary) 이지 사람의 신앙적 경험이나 열심이 우선이 아니다. 예를들면 세례가 세례 되는 것은 세례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세례자를 중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은총 때문이다. 또한 성만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경험에 의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자신을 떼어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또한 성례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할 때, 선포된 말씀(설교)에서 설교의 성격상 설교자의 주도적 위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회복될 수 있다.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성례전

장로교회에서 성례전 집례는 참된 교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표지 중의 하나다. 이는 스코틀랜드신앙고백서에서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설교, 교회의 올바른 권징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라고 규정한 것이 유래다.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에 관해서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개혁교회 성례전 신학을 현대교회에 진지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즉, 예수 믿는 이들을 환영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천국 잔치를 대망하면서 오늘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한다. 참된 교회는 성례전에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몸으로 느끼는 기호가 되도록 행한다.

◁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목회와 신앙의 중심으로서 성례전


성례전은 목사로서는 목사의 핵심 직무에 속하고, 교인으로서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확인하는 표시가 된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성례전은 목사의 직무 네 가지, 즉 말씀선포, 성례전 거행, 교인 축복, 교인치리 중 가장 고유한 핵심 직무에 속한다. 성례전 집례에 대한 미국장로교회 헌법에 의하면 '세례반과 성찬상에서 집례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해석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해 교인들의 비전을 고양해야 한다고 돼있다. 다른 한편으로 교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을 성례전으로 확인한다. 세례로 신앙이 시작되어 성찬을 대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생명은 세례로 태어나서 성찬을 먹으며 자라난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성례전적 직무를 위해서 뿐아니라,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례전적 안목으로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성례전

페루 리마에서 채택된 '세례 성만찬 사역에 관한 문서(BEM)'에서 성례전을 하나님 나라의 예전으로 묘사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성례전의 이해, 즉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돼야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성례전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도 강조돼 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예다가 생명과 영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동일한 특권을 주셨다. 성례전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사명을 다진다. 따라서 성례전의 기도는 개인의 구원과 믿음 뿐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포함한다. 세계의 평화, 약자의 인권,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행해지는 성례전에서 참된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대망하며 이 시대와 교회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감사와 송영(doxology)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에 힘을 다해 참여하기를 소망해본다.

-한국기독교공보 제3059호 2016년9월21일에서 발췌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 QR코드</p>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교육상담목사 양세라</p> <p>교육목사 임규현 정대은</p> <p>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nokhar Jimmy Eppley</p> <p>선 교 사 강아름주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캇전(가자흐스탄) 스프로뎀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정호진(미얀마), 조병현(김화정, 우상사(김정우,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일(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만폐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형정(미시아), 김민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김비슬(일본, 김너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훈쿠아 망, 탐,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엘, 레이, 난, 썹, 샌다, 사우, 카뮈, 랑, 흐라, 라비, 벤, 바예, 마웅, 차, 짜우, 마카델(미얀마) 필리몬, 프르산또, 루세리 수비쓰(이경철 알로통 비사루반도, 보르소프, 린름 수원철(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도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순교)</p>		

제27권	제10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2017년	3월5일
		<p>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한예수교장로회</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울교회</p> </div> </div>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p> <p>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p>		

“주안에 있어라”

■ 빌 4:10-13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In Christ)’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이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며 청빈하고 욕심을 버리는 삶은 당시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1.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자족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강조하는 자족은 욕망을 말살하라는 것이 아니며 자기 감정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은 욕망을 성취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 안에서(in Christ) 살아가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족은 ‘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주안에서 영생을 얻는다 함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입니다. 공관복음서의 공통적인 내용 역시 ‘영생’으로, 영생은 구원의 확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편에 대한 확신과 영생구원의 확신을 믿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2. 사도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이 당대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로마 시민권 자였으며,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빌 3:5-6). 그런 그는 율법에 박식함을 내세워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주님까지 핍박하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욕망과 감정만 초월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빌 3:7-12).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이 “주 안에서(In Christ)”라고 말합니다.

3.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세상의 삶은 매일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삶이 비천해지면 비관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며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주 안에서 신비를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 우리는 그 때에도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들은 진정 주 안에서 함께 했습니까? 형편이 풍부해질 때도 그 때도 주 안에 있었습니까? 삶이 풍요해지면 실천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족하지 않으면 행함이 어렵습니다. 신앙은 입으로만 계명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맺는 말

“나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다(I Can do it)”라고 말하기 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노라고 겸손히 증거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목격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거든 인간적인 편안함과 쾌적함은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타해지지 않으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주안에서 기뻐하며 함께 했던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김순권 목사(경천교회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신용식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양준경 장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5:4-5 인 도 자
 찬 송 310(410) 다 함 께
 기 도 백도환 집사
 성 경 요 1:1-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은혜와 진리 “ 설 교 자
 * 찬 송 302(408)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시 127: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24(사순절 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2(48).....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창 22:15-18, 인 도 자
 마 25:31-46, 계 19:11-16...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의인의 상 이종윤 목사
 (The Reward of the Righteous)

* 찬 송 Hymn353(39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랜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웨스트minster 홀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입

1. 정기당회 / 8일(수) 수요일예배 후 가이오 실

◆ 알 림

1. 1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디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3. 702호 예배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4.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결 혼

1. 남우현 군(남기현, 윤정은 씨의 차남)과 장미수 양(1교구 장재현, 이용희 성도의 장녀) /

3월11일(토) 오후6시30분 아모리스 역삼(2005-1010) / (2호선) 역삼역 7번 출구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수요일예배
863명	217명	220명	136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1/22 - 2/2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1/22~2/26	십일조현금	237,378,300		
"	주일헌금	24,824,700		
"	월정헌금	300,000		
"	교회학교헌금	920,850		
"	감사헌금	32,130,000		
"	생일감사헌금	480,000		
"	선교헌금	590,000		
"	지원교회헌금	580,000		
"	장학헌금	30,000		
"	구제헌금	120,000		
"	특별헌금	230,000		
"	비전2020헌금	80,000		
2/12~2/26	특별예배비		90,000	안내위원장차출작
"	말씀봉사비	46,080,000		부교역자 사례 외 (1~2월분)
"	찬양대 사례비 및 운영비	29,650,000		지휘자 반주자 (1~2월분), 특기자 사례
"	교회학교운영비	1,614,000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외
"	선교비	600,000		연세의료원후원(1~2월분)
"	구제비	5,200,000		권혁정선교사 구제 외
"	출판비	7,780,000		순례자편집및발행
"	급여	79,248,000		직원 급여 (1~2월분)
"	인건비	26,375,800		경비,청소집사 용역비 (1~2월분)
"	사무비	110,370		연말정산자료 송부 외
"	도서인쇄비	1,460,000		주보인쇄용지
"	소모품비	1,850,700		1층로비 토너 외
"	교통통신비	8,752,340		교회 문자 전송료 외
"	차량유지비	1,822,700		8190차량 주유 외
"	세금과공과	1,989,380		호산나대학 도로점용 등록면허세 외
"	복리후생비	673,390		병원비 외
"	수도광열비	17,789,620		교회 가스료 외
"	환경유지비	1,312,500		매트 교체 외
"	수선유지비	6,576,700		사택관리외
"	새가족운영비	12,040		새가족 사진 인화
	합 계	297,663,850	238,897,540	잔 액 \58,676,310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망국의 한에 통곡한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뜻있는 청년들은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으면서까지 금신상에 경배를 거부했다. 망국의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한 그들은 다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였다. 선지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옷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

조선왕조를 망하게 한 것은 당쟁과 허례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것들을 반복하며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완전한 인간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이 백성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며 일반 대중보다는 그 도덕 수준이 조금은 높아야 할 지도자들이 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주여, 이 짙은 암흑을 몰아낼 우리의 새 아침은 언제니이까?”